

활로 찾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여전히 '산 너머 산'

‘의과대학 신설’ 국정과제 채택 ‘호재’
전북·경북·인천보다 최우선 순위 불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반영 미지수
대학 통합·의평원 평가 등 과제 산적

이재명 정부가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그동안 진척이 없던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편
하지만 전남 의대 정원 신설, 목포대학교-순천대학교 통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

어 전남도와 양 대학이 목표로 설정한 ‘2027년 개교’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또 전남 7대 지역공약 중 1번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전남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 획기적 개선’을 확정했고 세부 추진과제로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명시했다.

특히 국정과제 실천 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이 포함된 만큼 시·도별 공약에 의대 설립이 담긴 전북(국립의대 설립), 경북(의대 설립), 인천(공공의대 설립)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 설립

이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게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도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거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1월 15일 대학 통합 추진을 결정하고 12월 31일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와 양 대학이 목표로 2027년 국립 의대 개교를 위해선 가장 먼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남 몫의 의대 정원 신설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공급자, 수요자, 학회·연구기관 등에서 각각 추천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급추계위

는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과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보건계로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동의를 얻어 실제 증원이 도출될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남도는 올해 안에 추계위에서 전남 몫의 의대 정원 신설을 결정해야 연내 한국교육개발원 예비 평가 인준 신청에 이어, 내년 3월 중 보건계로추진심의위원회 최종 확정을 통해 2027년도 의대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대 정원 신설과 함께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통합의대 설립 핵심 요건이자 대학 통합 기간을 단축시켜줄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의 검토 선결 과제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설립을 위해 캠퍼스별로 각각 총장을 유지하되 통합대학위원회 등 상위 거버넌스를 설치, 재정과 행정을 공동 활용하는 ‘느슨한 통합’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느슨한 모델의 대학 통합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대학 통합 신청서 제출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대학통합심의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로 알려져 있다. ▶2면에 계속 /양시원 기자



더위야 물렸거라~ 연일 쏟아지는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이 찾아온 17일 오후 구례 수락폭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서 더위를 쫓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SRF 약취 대안 마련 안하면 가동중지” 강경 대응

광주시·남구, 민관 합동전담팀 구성
상시 모니터링...행정절차 신속 진행
羨시장 “주민들 고통 덜겠다” 약속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약취 문제와 관련, 사측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가동 중지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남구청은 지난 14일 SRF 약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SRF 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소장, 효천지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6월부터 “SRF 제조시설로 인한 인근 지역 약취가 심각하다”는 주민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약취 포집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앞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남구는 약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청정빛고을 고발 및 행정처분(개선 권고) 조치를 취했으며,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측에 대책 수립 및 시설 운영 자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주민들은 ▲SRF 가동 중단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 ▲약취 상시 모니터링 ▲효천지구 쓰레기 운송 차량 우회도로 및 통행시간 변경 ▲광주시와 청정빛고을 간 위수탁계약 내용 공개 및 운영지침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와 남구는 ▲약취 문제 발생에 따른 법적 행정절차 신속 진행 ▲광주시·자치구·

주민·전문가 참여 TF 구성 SRF 시설 약취 해결 방안 논의 ▲약취관리지역 지정 검토 ▲주민들이 원하는 약취 분석 데이터, SRF 협약서 등 투명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현재 SRF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이 남구에 있는 만큼 남구청과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SRF 제조시설 일정 기간 가동 중지 및 시설 보수, 약취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세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SRF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약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일정지가 가능하다.

광주시와 남구는 약취 포집 및 복합 약취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알림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광주 도심 침수 구조적 원인·개선방안 모색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로 도심 침수와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긴급토론회는 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국회의

원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광남일보·KBC 광주방송 등 지역언론사가 주관합니다.

특히 최근 환경부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도심도 빗물터널’과 같은 초대형 인프라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심 침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긴급토론회에 광주시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주 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 일 시: 2025년 8월 18일(월)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제발표: ①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②권경호(주)스톰위터바이오 대표 ③김준택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 토 론: △좌장: 정준호 국회의원 △토론자: ▲김민환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토목환경) ▲양해근 한국환경재단연구소 소장(수문학) ▲김영선 광주전남 녹색연합 상임대표(환경생태) ▲김이형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수리학)
- 주 최: 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국회의원
- 주 관: 광주매일신문·광남일보·KBC 광주방송
- 후 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번 주 폭염 지속...내일까지 전남 일부 지역 소나기

이번 주 광주·전남은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목포와 진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는 주의보, 나머지 지역에는 경보가 발효됐다.

당분간 광주·전남의 기온은 평년(최저 22~2도, 최고 29~3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18~20일 최고기온은 31~34도, 최저기온은 22~5도로 예보됐다.

18~19일 전남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틀간 강수량은 각각 5~40mm다. /안재영 기자

Today

인터뷰·서삼석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위원장	5면
양림동 선교사 유적 ‘세계유산’ 도전	8면
KIA 뒷문 ‘와르르’...순위싸움비상	16면

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승화시키기 위한 일련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원고분량: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2025년 6월 9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2025년 9월 17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